

부부갈등

세

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부부간에 성문제란 아직도 남에게 들어내놓고 말하기가 꺼리는 부분이다. 아무리 몇 년씩 잡자리를 함께 한 부부일지라도 성에 관련된 문제는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피한다. 더욱이 남성위주로 흘러왔던 사회적 분위기는 잡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에서조차도 남성은 능동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다. 점잖은 여성이 성을 말한다는 것은 여염집 여성이 취할 바가 아니며 술집 작부나 하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여성이 그런 것을 거론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은 지금까지 남성위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으며 갈등의 한 요인이 되어왔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혼 가운데 성적 불만이 원인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성적인 갈등이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상대의 결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급기야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서로에게 이혼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부부간에 갈등을 이혼에 이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성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 법정에 가기 전에 비뇨기과에 먼저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비뇨기과에 성적인 문제로 부부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기능장애의 많은 부분이 비뇨기과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부가 함께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얼마전 진료를 받으러 왔던 부부는 그나마 대화로써 부부 사이의 종말을 막았던 경우이다.

둘 사이에 최근 6개월 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다. 부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둘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첫 번 미팅에서 만났던 사이로 결혼할 때까지 다른 이성과 사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낳고 하여 남들도 인정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아무래도 남편이 심상치 않았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일주일 내내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부부관계조차 없었으며 어쩌다 신호를 보내도 돌아눕기가 일수였다.

어느 날 잡지책에서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이 오래되면 권태기에 빠지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옛날처럼 뜨거웠던 감정이 사라지는 시기라는 것이었다. 그럼 자신들의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온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권태기라도 그렇지 부부 사이에 반년 이상 성관계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는 남편이 혹시 밖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부싸움도 몇 차례 하였으나 별로 개선되는 모습이 없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벌써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있으나 외롭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것에 제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혼까지도 생각하였다.

자신도 이혼하면 그들처럼 살 자신이 있었으며 지금의 남편이 원통해 하게 할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나오고 못한 자신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었다. 며칠전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지나가는 듯이 하는 말이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 동안 성관계를 기피하였다는 것이다.

회사 일도 바쁘고 구조조정이다하여 스트레스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성관계를 가지려는 순간 발기가 사그라져 버리더니 그 이후부터는 발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발기가 뜻대로 잘 안되다 보니 괜히 회사에서 술만 마시게되고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을 하던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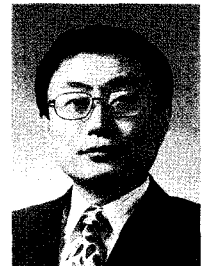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이라면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결혼이후 성적으로 그러게 요구하는 타입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발기가 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고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서 고민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것이었다.

남성들이 술집에서는 호기롭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부분 30~50%의 허풍이 섞이게 마련이다. 자신이 변강쇠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단지 변강쇠처럼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남성들끼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집에서는 부인에게 하기를 꺼려한다. 집에서는 권위있는 가장으로 남기를 원하며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에 상처받을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자신의 발기능력이 감소되었다는 말은 차마 부인에게 할 수가 없다. 자신이 성적능력이 떨어졌다고 하여 상대도 성적 관심도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물론 과거에는 흥이 될 수 없으며 여성이 관심을 가지면 칠거지악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커졌다. 남성으로부터 인권과 경제력 등의 독립은 급기야 잠자리에서도 독립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치료받으러 다니는 두 사람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란 역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이해할 때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